

새해에도 '초저가' 이어진다...유통가, 연초부터 '할인 경쟁'

이마트, '2024 가격파격 선언'...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홈플러스, '2024 홈플러스 물가안정 프로젝트' 진행

새해에도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연초부터 반값 할인 등 초저가 경쟁을 이어가며 알아진 소비자 지갑 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7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5일부터 필수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저가 수준에 제공하는 '2024 가격파격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밀마다 '인기 먹거리·채소·가공식품' 등 식품 내 '키(Key) 아이템' 3가지를 뽑아 초저가로 제공한다. 다음달 1일까지 판매되는 '1월 가격파격 3종'은 삼겹살·대파·호빵이다.

'가격파격 삼겹살'은 국내산 돈삼겹살·목심이 100g당 1780원에 제공돼 정상가보다 약 30% 저렴하다. 흉대파는 1봉당 2980원으

로 정상이 대비 40%. '삼립 발효미종 단팔호빵 8입'은 판매가 3980원으로 40% 이상 싸게 구매할 수 있다.

'가격파격 선언'의 또 다른 축인 가공식품·일상상품 40개 아이템은 고객들이 평소 장바구니에 자주 담는 상품들로 이뤄졌다.

이달의 40개 아이템에는 농심 짜파게티·제주삼다수·서울우유·종가 맛김치·페리오 치약·코디 화장지 등이 포함됐다. 해당 상품들은 정상이 대비 적게는 10% 많게는 60% 이상 싸다.

이마트는 다음달부터 분기에 한 차례씩 '반값'을 내세운 '가격 역주행' 한정판 상품도 선보인다. 가격 역주행 기획상품의 정식 명칭은 '가격역주행 1993'이다. 물가는 오르지

만 이마트의 가격만은 거꾸로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부터 '2024 홈플러스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첫 주인 오는 10일까지는 겨울철 밥상 단골 상품을 '반값'에 선보인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보먹돼(보리 먹고 자란 돼지)' 삼겹살·목심, 호주정정우 안심, 팽이버섯, 백진미 오징어채 등이 대표적이다. 두부·콩나물·만두·간편식·탕·찌개·제과·음료 등 먹거리 약 200종은 '1+1' 판매한다.

이외에도 'F2F' PB(자체브랜드) 겨울 의류를 최대 50% 할인가에 내놓고 수납·욕실용품과 완구 500여 종을 최대 80% 할인해 판다. 겨울집구·햇팩·문풍지·단열시트 등 방한용품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물가안정 주말특가' 기획전이 열리는 4~7일 나흘간은 농협안심한우 국거리·불고기,



할 랍스터 등을 50% 할인해 '반값'에 내놓는 다. '짬뽕족' 사이에서 인기 급상승 추세인

당당 두마리엿날닭담은 6일 하루 9990원에 선보인다.

김수권기자



실내 나들이객으로 붐비는 쇼핑물

새해 첫 주말을 맞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찾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CES 2024서 OLED 신기술 대거 공개



LG디스플레이는 세계 최대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독자 기술로 고대 가치를 혁신한 OLED 전라제품을 대거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노스홀과 웨스트홀에서 메인 부스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용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 주제는 '더 나은 미래(A Better Future)'로 정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에서 화질과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형 OLED 신기술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에 최적화된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총망라한다.

◆TV, 게이밍 모니터 등 대형 OLED 신기술 '한자리에'

노스홀 메인 부스에서는 OLED 화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OLED TV 패널을 공개할 예정이다. OLED 10년의 기술력을 결집한 신

기술 '메타(META) 테크놀로지'의 성능을 더 향상시켜 기존 대비 화질을 대폭 끌어올렸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메타 테크놀로지'는 유기물의 빛 방출을 극대화하는 '초미세 렌즈(MLA, Micro Lens Array)'와 '휘도 강화 알고리즘'을 결합해 현존 OLED TV 패널 중 가장 밝은 화면을 구현하는 LG디스플레이만의 독자기술이다.

OLED 최초로 480Hz 초고주사율을 구현한 고성능 27인치 QHD 게이밍 OLED 패널을 비롯해 20인치대에서 40인치대까지 게이밍 OLED 풀라인업도 공개한다.

34.39인치 패널은 울트라 와이드(21:9) 화면비로 더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31.5인치 패널은 UHD(3840x2160) 해상도로 가독성을 높여 게임뿐 아니라 사무 작업, 콘텐츠 감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투명 OLED는 77인치, 55인치, 30인치 등 초대형과 중형을 모두 아우르는 풀라인업을 활용해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리테

차량용 디스플레이 솔루션 공개

일 매장용 콘셉트를 제안한다.

◆초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 솔루션 대거 공개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용 부스에서는 P(플라즈마)-OLED, ATO(Advanced Thin OLED), LTPS(저온다결정실리콘) LCD 등 차별화 기술로 SDV에 최적화된 초대형 '필러투필러'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전시한다.

초대형 P2P P-OLED는 계기판용 '12.3인치 P-OLED'와 중앙 스크린용 '34인치 P-OLED'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마치 하나의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전면을 덮은 듯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48인치 P2P LTPS LCD'는 대시보드를 가득 채우는 초대형 화면을 통해 탑승자가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P2P와 같은 초대형 디스플레이 등장에 따라 차량 운행시 시야각을 조절해 운전자가 조수석의 화면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시야각 제어 기술(SPM)'도 함께 소개한다.

차량 내 한정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새로운 탑승 경험을 제공하는 신개념 솔루션도 선보인다.

뒷좌석 엔터테인먼트(RSE, Rear Seat Entertainment)용 '17인치 풀터블 OLED'와 천장에 설치하는 '18인치 슬라이더블 OLED'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만 화면을 펼쳐 사용할 수 있어 탑승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다.

디스플레이 투과율을 조절해 화면 속 카메라를 숨길 수 있어 디자인 차별화가 가능한 '언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비활성화할 때는 차량 내 인테리어 소재인 나무나 카본처럼 보이도록 하는 '데코레이티브 필름' 등 신기술도 선보인다.

서선욱기자

지난해 라면 수출액 9억 5천만불 돌파

지난해 한국 라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일 관세청과 식품업체 등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9억 5,2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2,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간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15년부터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2015년 2억달러대에서 2018년 4억달러대로 늘어나고 2020년 6억달러대, 2022년에는 7억달러대를 기록했다.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는 K-콘텐츠의 인기가 꼽히는데, 한국 영화와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라면이 노출되며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챌린지 등도 국내 제품을 알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나19) 확산으로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수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뉴스시스

롯데백화점, '졸업 시즌' 특가 진행...“의류부터 뷰티까지”

각 점포별 졸업 관련 행사 및 프로모션 강화

롯데백화점이 빨라진 '졸업 특수'를 겨냥해 스테디셀러인 의류부터 뷰티까지 특가에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졸업 인기 선물인 신발과 가방이 포함된 스포츠 상품군 매출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 가량 성장세를 보였다. 더불어 예비 대학생 입학 선물로 인기인 화장품 상품군 매출도 20% 신장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각 점포별로 졸업 관련 행사 및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먼저 졸업 관련 대표 스테디셀러인 신발, 가방 등을 특가에 선보인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는 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등에서 오는 21일까지 신발, 의류 구매 시 10% 할인과 동시에 시즌오프 품목은 30%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보메로 17', '에어포스1'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중동점에서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스트리트 감성의 가방 브랜드 '아이스비스킷'의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아이스비스킷'의 모든 책가방을 만나볼 수 있으며 행사장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캐러티 에코백도 증정할 계획이다.

예비 대학생을 위한 주얼리, 액세서리, 화장품 상품군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오는 31일까지 크리스털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에서는 인기 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Una 펜던트(12만3000원), Teddy 브레이슬릿(19만6000원) 등이 있다.

또 글로벌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인 '케이스티파이'의 국내 일곱 번째 공식 매장을 본점



지하 1층에 오픈한다. 오픈을 기념해 오는 14일까지 3일간 폰 케이스를 포함 2개 상품 구매 시 5만원 상당의 비즈 스트랩을 증정한다.

더불어 입생로랑 뷰티에서는 14일까지 립스틱 2개 구매 시 립스틱거울과 립스틱 미니를 증정하며, 본점 발렌티노 뷰티 매장에서는 30만원 이상 구매 시 럭키박스 스크래치 이벤트를 통해 누드스몰파우치, 립미니어저, 향수 미니어저 등을 증정한다.

이슬비기자